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Post-2015 의제 관련 제3차 정부간 협상」 참가 결과 보고

(통계개발원/15. 3.31.)

1. 개요

□ 회의명

-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타겟: Post-2015의제 관련 정부간 협상 (Sustenanc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 **출장자** : 박경애 통계개발원장

□ **출장지 및 출장기간** : 미국 뉴욕 UN본부, 3.22.(일)~27.(금)

□ 출장목적

- (UN 정부간협상)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타겟: Post-2015의제 관련 정부간 협상 한국대표단으로 통계청 관련분야인 지표 관련 회의 참석
- (UN대표부 회의) Post-2015 지표관련 업무협의 및 정부입장 조율

□ 출장 일정

일시	내용	장소
3.22일)	■ 인천출발-뉴욕 도착	
3.23(월)	■ UN 대표부와의 업무협의 ■ 제3차 정부간 협상 참석	뉴욕 UN 본부
3.24(화)~25(수)	■ UN 대표부와의 업무협의 ■ 제3차 정부간 협상 참석	뉴욕 UN 본부
3.26(목)~27(금)	■ 뉴욕출발-인천 도착	

2. UN 대표부와의 업무 협의

□ 개요

- 장소: UN 주재 한국대사관
- 1차 회의 참석자(3.23): 오준 대사,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의 대표단 10명 (임훈민 공사참사관, 김남기2등서기관 포함)
- 2차 회의 참석자(3.24): 한충희 차석대사

□ 주요 내용 (붙임 1)

○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관련 통계청 입장

- 논리적 지표체계 구축 및 세분화
- 세부지표 및 지표의 명료화
- 모니터링 수준 및 보고체계
- 글로벌 지표개수 최소화
- 지표의 유연성 확보 및 지표 논의 체계
- 분산형 통계제도의 특수성

○ UNSC(통계위원회)의 관련 업무 진행 현황

- 포괄적 발전의 측정에 대한 의장자문단 설립('13. 3월)
- 공식통계를 위한 빅데이터 작업반 설립('14. 3월)
- 제1차 및 제2차 UN통계처(UNSD)의 지표개발 관련 조사 실시('14. 10월/'15. 2월)
- 지표프레임워크 개발 및 이행 로드맵 수립('15. 3월)
- 모니터링 관련 기구 설립 승인('15. 3월)

○ UNSC 지표프레임워크 관련 합의 사항 및 향후 계획

* 지표 프레임워크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15. 2.25-26, 뉴욕)

- 글로벌 지표수는 적게 하고 지표는 합의된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
- 국가별 지표생산에 대한 책임감 및 지표세분화 강조
- 필요자원 동원 및 국가통계 역량 강화
- 기존 통합통계 프레임워크 활용 및 MDG의 경험과 교훈 이용 등
- IAEG-SDGs*가 설립되어 지표 프레임워크 관련 로드맵을 구축하고 제47차 통계위원회('16년)에서 승인되어 추진될 예정

*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 UNSC의 주요의제 진행사항

- 포괄적 발전(Broad Progress) 측정관련 FOC(의장자문단) 활동 및 결과

- Post-2015 의제 지표선정 기준 제시 및 모니터링 관리기관 체계 등 제시
- 데이터 가용성 국가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14. 10월)
- 자료격차 축소 및 통계역량 강화 제시

- 데이터 혁명(IEAG 활동 내용)

- IEAG는 데이터혁명의 정의, 제언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14. 11. 6)
 - 포용(No one left behind) 및 데이터 세분화
- * World That Counts: Mobilising the Data Revolution for SDGs

- 공식통계의 빅데이터 활용 관련 글로벌 작업반 활동 및 결과

- '공식통계를 위한 빅데이터' 국제 컨퍼런스 개최('14.10.28-30, 중국)
- 글로벌 작업반 회의 개최('14.10. 31, 중국)

- 통계생산 방식의 현대화(Modernization)

- '통계생산 및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그룹'(HLG) 구성(2010년)
- 통계생산 방식 현대화를 위한 필요 사항
 - 효율적 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구축, 현대화에 기반한 표준 설정 및 활용, 이차 자료원 활용 등

- 공식통계의 변혁 의제 고위급 회의 논의 결과

* 일정 및 장소: '15. 1.15.~16./미국 뉴욕 UN 본부

- Post-2015 의제를 위한 통계 현대화를 위한 포괄적인 통계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의 폭넓은 활동 및 주제 구성
- 현대화 프로그램에 근거한 기준과 통합통계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 통계접근법을 선택
- 국제 및 지역 통계기관과의 지원을 받는 국제 프로그램 실행과 국가수준의 통계역량개발

○ 제46차 UNSC의 주요 결정 사항

- 포괄적 발전(Broad Progress) 측정관련 FOC(의장자문단) 활동 및 결과

- Post-2015 의제 지표선정 기준 제시 및 모니터링 관리기관 체계 등 제시
- 데이터 가용성 국가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14. 10월)
- 자료격차 축소 및 통계역량 강화 제시

3. Post-2015 의제 제3차 정부간 협상 회의

□ 개요

- 일시 및 장소: '15. 3. 23~25, UN 뉴욕 본부
- 참석자: 각 국 대표, NGO 등 민간 관계자 등 약 500명
 - (주UN대표부) 한충희 차석대사, 임훈민 공사참사관, 김남기 2등서기관
 - (외교부 본부) 오영주 개발협력국장, 원도연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박주영 녹색성장외교과 외무서기관, 박성훈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외무사무관, 장윤진 유엔과 외무사무관
 - (관계부처) 손주영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혜민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행정사무관
 - (통계청) 박경애 통계개발원장
- 내용: 지속가능발전 목표(goals), 세부목표(targets) 및 지표 등 논의
- 회의 일정 및 중계: <http://webtv.un.org>

	일시	논의내용	발표자 등
3.23(월)	10:00-10:30	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facilitators
	10:30-13:00	목표 및 세부목표를 위한 지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차 UN통계위원회 의장 발표 ▪ 인도, 헝가리, 보츠와나, 에콰도르의 통계당국 책임자들 발표 ▪ 공개 토론(각 국 발언)
	15:00-18:00	목표·세부목표를 위한 지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토론(각 국 발언)
3.24(화)	10:00-13:00	목표·세부목표를 위한 지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토론(각 국 발언)
	15:00-18:00	목표·세부목표를 위한 지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이행관련 네덜란드, 콜롬비아, 토고, 미얀마발표 ▪ 공개 토론(각 국 발언)
3.25(수)	10:00-13:00	주요 그룹-이해관계자와의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그룹 대표 발언
	15:00-18:00	목표 및 세부목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토론(각 국 발언)

□ 지표 관련 주요 논의 내용

■ 공통 강조사항

- i) 지표는 세부목표 이행 점검을 위해 이해와 접근이 용이해야하고, 지표 작성을 위해 충분한 시간 및 공개적이고 투명한 프로세스 확보필요
- ii) 새천년개발목표(MDGs) 지표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하여 중복 회피 및 글로벌-지역-국가 지표들을 활용하는 다층적 접근 필요
- iii) 이주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데이터 세분화 필요

■ 개도국 진영

- i) 지표 개발 과정에서 SDGs의 기술적 재해석 또는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 ii) 금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 이전 최소한 가시적인 형태의 지표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요청
- iii)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조달 및 기술이전의 중요성 강조

■ 선진국 진영

- i) SDGs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세부목표의 경우 지표를 통해 이행 여부를 실제 측정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 필요
- ii) 지표개수 축소, 지표생산을 위한 data ecosystem 조성
- iii)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제고,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제안

○ UNSC의 “글로벌 지표체계 개발 과정” 보고서 (붙임 2)

- (UNSC 의장) 제46차 UNSC 회의시 승인된 내용*과 304개 지표에 대한 각 국 대상 서베이 결과를 소개하고, 지표개발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지침 제공 요청

* 글로벌 지표 체계 개발과 이행을 위한 로드맵, 제47차 회의시 지표 채택을 목표로 한 로드맵, SDG 지표 전문가 그룹(IAEG-SDGs) 설치

- (인도 등 통계당국) 지표개발과정시 고려사항으로 i) 시간적 제약, ii) 개도국들의 역량, iii) 모니터링/평가 메커니즘, iv) 주요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시
-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 UNSC 서베이에 많은 개도국들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이상의 지표가 이용/측정가능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으므로 9월 정상회의 문서에 지표를 포함하기보다는 향후 15년에 초점을 두어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G77/중국 등 개도국) 지표개발을 위한 기술적 검토 작업이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체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을 강력하게 개선하고, 9월 정상회의에 지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 글로벌 지표 체계 수립 방향

- (대부분 국가) SDGs 글로벌 지표 개발 작업의 원칙으로서 i) 목표 및 세부목표와의 관련성 확보, ii) 세부목표의 상호관련성(inter-linkages across the targets)을 감안하여 지표가 여러 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지표 개수 최소화, ii) 글로벌-지역-국가 지표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층적인 지표시스템 구축, iv) 공개적이고 투명한 프로세스 운영
- (G77/중국 등) 개도국들에 대한 재정 및 역량강화 지원과 지표 개발 과정이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체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을 강력하게 개선
- (미국 등 선진국) 글로벌 지표의 기술적 검토 및 각 국 통계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표도 목표와 같이 사회·경제·환경의 3가지 측면을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주장

○ 국가별 발언 특기 사항

- (G77/중국) 모든 세부목표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UNSC 작업은 국가 지표가 아닌 글로벌 지표에 한정하며, 향후 UNSC의 기술적 검토와 함께 회원국 정부들이 정치적 지침 제공 기회 마련
- (EU) 지표에 의한 세부목표의 과도한 단순화는 안 되며, 목표의 성격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영국/노르웨이) 세부목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MDGs를 참고하여 글로벌 지표는 최대 100개로 제한 필요
- (미국) 지표 개발시 주요 요소로서 i) 유연성 및 측정가능성, ii) 복수의 세부목표에 적용 가능한 지표들 통합, iii) 단순한 성공/실패 판단 보다는 점진적 진행경과 모니터링, iv) 지역/국가 차원 지표의 보완적 역할, v) 데이터 세분화, 투명성 및 책임성의 중요성 등 강조
- (일본) 지표 개발은 기존의 글로벌 지표(특히, MDGs)에 기초하고 WTO 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같은 정부간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지표 개수 제한 및 투명성 확보 필요
- (호주) 기존 지표들을 활용하여 향후 15년간 달성해야 할 장기적인 목표를 고려하고,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를 의식하여 지표 개발을 6개월 이내에 완료하려는 시도는 곤란
- (캐나다) 세부목표에 대한 기술검증이 SDGs 재협상 또는 목표와 세부 목표 감축 목적으로 이용되면 안 되며, 통계전문가들은 제안된 지표들이 지속달성 가능하고 유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필요

4. 정부간 협상 관찰 및 시사점

□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 강화

- 제3차 정부간 협상에서 한국대표(외교부 오영주 개발협력국장)는 통계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수 제한, UNSC 서베이 결과와 분산형 시스템의 한계, 통계 전문가 역할의 중요성 등 선진국 진영과 비슷한 의견 제시

■ 향후에도 외교부 주관 부처간 협의 및 국내 워킹그룹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간협상시 통계청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 필요

- 169개 세부목표 중 19개 세부목표에 대한 수정사항 배포와 논의 (붙임 3, 수정 세부목표)

- 기존 세부목표에서 “i) 목표치(x/y) 또는 목표달성 기한의 구체화가 필요한 목표(3.2/4.4/4.6/4.b/6.3/11.5/11.b/15.2), ii) 국제협약 내용과 일치(3.6/3.b/6.6/8.7/11.5/12.4/15.1/15.2/15.5/17.2) iii) 측정가능성(4.c/9.5), iv) 목표달성 기한 변경(15.3)”에 대한 사항 수정

* 11.5와 15.2의 경우 i)과 ii) 모두 해당

- ** 19개 세부목표는 신생아 및 아동 사망 근절(3.2), 교통사고·상해(3.6), 백신 등 연구개발(3.b), 기술·직업능력 인구비율(4.4), 문자해독능력률(4.6), 장학금 비율(4.b), 교사보급률(4.c), 수질개선비율(6.3), 물관련 생태시스템 보호(6.6), 아동·강제 노동 등 근절(8.7), 연구인력 증가율(9.5), 재난관련 사망 및 GDP 대비 손실률(11.5), 도시와 거주지 증가율(11.b), 화학물질과 폐기물 감소(12.4), 토양의 지속가능 사용(15.1), 산림관리·조림 증가(15.2), 탈사막화(15.3), 멸종위기 보호 등(15.5), 선진국의 GNI 대비 ODA사업 비율(17.2)

■ 한국 통계청이 글로벌 지표 및 국가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목표-세부목표-지표 관계성에서 수정사항 등 최신정보 팔로우업을 위해서 IAEG-SDGs의 활동 등 국내외 관계부처 회의에 적극 참여 및 세밀한 관찰 필요

〈수정된 세부목표 목록〉

목표	세부목표	목표	세부목표
3. 빈곤퇴치	(3.2) 신생아 및 아동사망 근절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8.7) 아동노동, 강제노동 금지 및 철폐를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시행;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 및 소년병사 모집 및 사용 근절
	(3.6) 교통사고 사망 및 상해 건수를 1/2로 감소	9. 탄력적인 기반시설 구축,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추구	(9.5) 혁신 추구 및 백만명 당 연구인력 x% 증가
	(3.b) 백신 및 약품 연구개발 지원	11. 포괄적, 안전, 탄력 및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11.5)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영향 받는 인구수 감소 및 GDP 대비 경제손실을 y%로 감소
(4.4) 적절한 기술 및 직업 능력을 확보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을 x% 증가	(11.b) 포괄, 자원효율,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재난 회복력 등에 대한 통합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 및 거주지의 수를 x% 증가		
4. 고품질 및 평생 교육기회 제공	(4.6) 최소 x%의 읽고 쓰는 능력 및 산술능력 보유 보장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 보장	(12.4)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관리 달성 및 대기, 토양, 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감소
	(4.b) 직업기술, ICT, 공학 및 과학기술 프로그램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 건수를 x% 만큼 확대	15. 육지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 지속가능한 산림,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방지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15.1) 육지 및 내수면 담수 생태계의 절약,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4.c) 능력 있는 교사들의 공급을 x% 만큼 확대		(15.2) 삼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촉진, 산림파괴 중단, 퇴화산림 복원 조림 및 재조림 증가
	(6.3) 배출 전 재활용 또는 처리 비율을 x%로 증가시켜 수질 개선		(15.3) 사막화에 대응한 퇴화 토양 및 토지 복원, 토지 퇴화 중립 사회 달성
6. 물과 위생에 대한 가용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6.6) 물 관련 생태시스템(산, 숲, 강, 호수 등) 보호 및 복원	17. 글로벌 파트너십과 실행 수단의 강화	(15.5) 멸종위기 종 보호 및 예방 (17.2) 개발도상국에게 GNI의 0.7% 최빈국에게 GNI의 0.15-0.20%를 ODA로 제공

□ **SDGs 이행 및 한국형 발전전략 마련**

- 선진국(독일, 네덜란드 등) 뿐만 아니라 개도국(콜롬비아, 미얀마 등)에서도 **SDGs이행 전략** 추진
 - 정치권에서는 SDGs와 Post-2015 의제 통합에 대한 이견, 목표-세부목표-지표 수 및 관련성에 대한 이견, 목표의 이행 공론화 부족 등으로 이행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 통계당국은 Post-2015의제 지원 관련 데이터 혁명, 통계변혁 등 일련의 변화에 대해 위기이자 기회로 생각
 - 선진국(스웨덴, 영국, 미국, 스위스 등) 중심으로 민관 협력 및 소통을 강조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국가별 SDGs 이행 촉구

- 대다수 국가들이 UNSC는 글로벌 지표만을 선정하고, 국가별 지표는 각 국가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주장

- SDGs와 국가발전전략을 연계하여 경제, 사회, 환경이 통합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계기반 발전전략 필요
- 한국형 목표-세부목표-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 Post-2015 의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통계발전의 기회로 활용
- 주로 민간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혁신경험이 풍부하므로, 민간과의 소통 강화 및 민간 전문성 활용 강화

□ 데이터 혁명 및 데이터 세분화

- 데이터 혁명의 포용(No one left behind) 원리에 따라 데이터의 세분화(Data Disaggregation) 요구가 핵심 이슈
 - 데이터의 세분화는 성, 연령, 지역 등 주요 기본항목 뿐만 아니라 인권, 취약계층을 고려
 - 시민사회는 아동, 청소년, 노인, 젊은 여성, 난민, 원주민, 이주민, 영토관련 변수, 도시빈곤층 등 다양한 세분화를 요구
 - 시민사회는 IAEG-SDGs에 시민사회 참여와 통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알려주는 포럼 요구
 - 양적 데이터 뿐만 아니라 질적 데이터, Composite Index, 데이터 세분화, 웰빙 측정, 글로벌-지역별(regional)-국가별로 지표의 다층적 접근 및 지방(local)차원의 이행 강조

- 데이터 세분화에 따른 개인의 비밀보호와 자료 활용성 극대화간 균형을 위해 비밀보호기법 연구 및 실천 필요
- 데이터 세분화에 대한 이차자료 생산기법 연구
- 한국 상황에 적합한 데이터 세분화 기준 및 부처간 자료생산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예상되므로, 선제적 대응 및 통계청 활동에 대한 홍보 필요

<붙임>

1. Post-2015 의제 지표관련 협의 자료

2. UNSC의 Post-2015 지표 프레임워크 개발과정 보고서

(Technical report by the Bureau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UNSC) o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an indicator framework for the goals and targets of the 2015 development agenda)

3. 수정 세부목표(Targets)